

## 남해 금오도 바다목장화 주변해역의 동물플랑크톤 군집구조

김혜선 · 서호영<sup>1</sup> · 윤양호<sup>2</sup>

(여수대학교 대학원, <sup>1</sup>여수대학교 생물자원확전공, <sup>2</sup>여수대학교 해양시스템보전전공)

남해 금오도 바다목장화 해역 동물플랑크톤 군집구조 특성 파악을 위한 조사를 4회에 걸쳐 계절별로 실시하였다. 조사해역에 우점하는 동물플랑크톤은 야광충, 요각류, 화살벌레류, 유생류 등으로 출현 비율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육식자인 화살벌레류가 가장 높은 출현 비율을 보였으나, 이외의 계절에는 입자식성의 요각류가 가장 우점하였다. 야광충은 봄에 높은 출현 비율을 보인 반면, 유생들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우점적으로 출현하였다. 동물플랑크톤 현존량은 가을철에 가장 높았으며 (평균 6190 ind./m<sup>3</sup>), 여름철에 가장 낮았다 (평균 60 ind./m<sup>3</sup>). 종 다양도 지수 또한 가을철에 가장 높았으며, 여름철에 가장 낮았다. 요각류 중에서는 입자식자인 광염 연안종인 *Acartia pacifica*가 여름철에 최고의 개체수를 보이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 종은 고염 연안종인 *Acartia erythraea*, *A. omorii*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의 대량 유입이 금오도 해역에 저염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동물플랑크톤 종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